

일 주 문



보조국사 제803주기 종재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5월 5-6일 2일간 보조국사 제803주기 종재 및 보살계 수계산람을 개최한다.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개최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9일 서산대사 탄신 493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서울 불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4월 24일 불은사 향적원에서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2013 리더스포럼 개최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4월 3일부터 박정범 교수를 초청해 2013년 첫 리더스포럼을 진행한다.



동티베트 역사문화탐방단 모집
조성택 우리선우 이사장은 5월 31일까지 중국 사천성 및 동티베트 지역을 돌아보는 제2기 세계역사문화탐방단을 모집한다.



김성숙 선생 제44주기 추모제
민성진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4월 12일 서울 현충원에서 '운암 김성숙 선생 제44주기 추모제'를 거행한다.

이정현·조광래 씨,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이정현 청와대 정부수석(사진 왼쪽)과 조광래 나로호우주발사추진단장(사진 오른쪽)이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이정현 동문의 경우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해 온 점을, 조광래 동문은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키며 한국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은 공로를 인정해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 포교사단 사무실 이전

포교사단 사무실이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12-2번지 삼선빌딩 4층으로 이전했다.

“불교미술 거장 만봉 스님 불화세계 전승”

이용국 신원불교재단 이사장, 만봉불화박물관 개관

“백수(白壽)가 다 되도록 화필을 놓지 않고서 정진하신 만봉 스님의 불교미술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계승·전파하겠습니다.”



해발 1100미터의 망경대산 서쪽 계곡의 울창한 수림에 위치한 만봉사·만봉불화박물관 전경(좌)과 이용국 이사장.

만봉사·만봉불화박물관을 해발 1100미터의 망경대산 서쪽 계곡의 울창한 수림에 위치하고 있다. 만봉사 종각에는 이용국 이사장의 범명(梵名) 자 호(號)를 딴 범종인 '신원의 종'이 있다.

만봉사·만봉불화박물관은 해발 1100미터의 망경대산 서쪽 계곡의 울창한 수림에 위치하고 있다. 만봉사 종각에는 이용국 이사장의 범명(梵名) 자 호(號)를 딴 범종인 '신원의 종'이 있다.

만봉불화박물관에는 만봉 스님의 유물과 탱화 등 불화작품을 비롯해 도자기 등 수백점이 전시 보관되고 있다.



화재로 지정된 초(불화작품 밑그림) 10점이 전시돼 박물관으로서의 품격을 더했다.

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충청 용봉사와 수덕사를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의지하게 됐죠.

이 이사장은 1965년 '신원펠트공업'을 세우고 국내 최초로 펠트(FELT)생산을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늘 부처님과 함께했다. 서울 본사와 인천·충남 등 공장에 석불을 모시고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과일 등 공양물을 올린 뒤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러다 이용국 이사장은 1990년대 초반 만봉 스님을 처음 만나 만봉 스님의 불화 전시가 있을 때마다 스님을 찾았고 전시회 마련도 도왔다.

“만봉 스님은 정말 부처님과도 같았어요. 항상 청빈하게 살면서 나보다 남을 생각했죠. 욕심이 없던 스님은 오로지 불화그리기에만 열중하셨어요.”

이용국 이사장은 이런 만봉 스님의 수승한 뜻을 새겨 특색 있는 문화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불교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프로그램 구축과 시연회를 통한 수행문화체험을 제공하고,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재심 연기... 법규위 이관 희망”

원두 스님 18일 기자회견 “과거사 참회 의사 있다”

“최근 글을 쓰기 위해 당시의 종회 회의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면면히 살피니 지난날 잘 살지 못했는지 후회가 듭니다. 후배 스님들을 보듬지 못했던 제 지난날을 반성했습니다.”



다. 현재 원두 스님은 자신의 특별재심 청구심판에 대해 연기해줄 것을 신청했다.

1994년 사태로 체탈도침된 원두 스님(사진)은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상황을 이같이술했다.

이 화합하지 못했던 그날의 잘못도 통감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던 지난날의 과오를 말할 의사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신종일 기자

도명스님 제 18주기 다례재 봉행

도명 스님 제 18주기 다례재가 3월 20일 고성 화암사에서 화암사 회주 정후 스님을 비롯해 前 파계사 주지 도원 스님, 화암사 주지 동선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계종 종회의원과 규정부장을 지냈으며, 1995년 2월 예전 보문사에서 입적했다.

김주일 기자

이 자리에서 동선 스님은 “살아생전 은사 스님이 강조하셨던 가르침을 잘 되새기며 가행정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20주기를 맞는 2년 뒤에는 기념 문집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암사·구미대 연계프로그램 ‘눈길’

12년 21명 사회복지사 취득... 18명 입학

청암사가대학과 구미대학의 사회연계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청암사가대학·청암사대학승가대학원은 3월 21일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구미대학교 특수보육계열 아동복지학과 연계해 불교복지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를 비롯한 일반 4년제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 가능했다.

구미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2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21명의 스님들이 배출됐으며, 올해 3월 현재에는 18명의 학인 스님들이 구미대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다.

구미대학 특수보육계열 아동복지학과 졸업하면 아동복지전문사,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실기교사2급을 취득하게 된다. 동국대학교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4기 화쟁리더십아카데미 개강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조계종 화쟁위)는 3월 19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제4기 화쟁리더십아카데미를 개강했다.



은 그룹으로 팀을 이뤄 번갈아가며 대화를 진행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참가자들은 2인씩, 혹은 그룹으로 팀을 이뤄 번갈아가며 대화를 진행했다.

신종일 기자

Advertisement for a Buddhist event: '고승대덕 초청 보살품계 수계의식 및 영산 대법회 (사)한국불교조견종 (照見宗) 창종 기념 한마음 전국 노래자랑'. Includes details about the date (April 28, 2013), time (10:30 AM), and a list of participating monks and organizations.